

양손프로젝트 신작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2025.10.16-26

유령네

‘GHOSTS’ BY
YANGSON PROJECT



LG아트센터 × 양손프로젝트

“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우리 모두 이미 죽은 게 아닐까.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거야.**

”

헨리크 입센의 희곡 '유령'의 덴마크어 원제는 'Gengangere'로, 어원은 '다시 걷는 자(again-walker)'이다. '망령', '유령', 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사람이나 그러한 현상'을 뜻한다.

유령은 실체가 없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한다.

죽은 것들이 남긴 흔적 위에서

‘유령’은 1881년 노르웨이 서쪽 피오르드와 접한 시골마을, 알빙 부인의 대저택에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노르웨이에만 1,200개 넘게 밀집해 있는 피오르드(fjord)는, 빙하가 깎아낸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생긴 길고 좁은 만이다. 빙하는 녹아 없어졌지만 빙하가 수천년간 만들어낸 흔적은 남아있는 것처럼, 알빙 부인의 저택에도 gengangere, 죽은 유령들이 사라지지 않고 거닌다.

알빙 부인은 저택의 유령들이 이미 죽은 것들임을 안다. 실체가 없는 것들인 것도 안다. 알빙 부인이 아내라서, 어머니라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서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이 낡고 부당한 과거의 관습인 것도 알고 있다. 알빙 부인은 죽은 목소리에 저항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죽은 목소리에 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진정으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얻는다.

다수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다. 수십, 수백 년 동안 쌓여 온 목소리라면 더욱 그렇다. 이 목소리들은 나의 부모, 나의 부모의 부모, 나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전해 내려져 왔고, 어디서부터 주입된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온전히 나의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종교, 도덕, 관습, 통념, 타인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 개개인을 만든다. 그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에서 벗어나 온전히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저마다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붙들고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지켜내려고 애쓴다.

사회가, 또는 스스로가 부여하는 책무는 무엇으로부터 형성되는지, 이미 죽은게 분명한 유령들은 어떻게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까지 파괴하는지, 양손프로젝트는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유령‘들’을 불러내 경고한다.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지 않는 이들, 근원을 알 수 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목소리를 의심하지 않고 몸을 내맡기는 이들은 유령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자 하는 이들에게 연극 ‘유령들’은 매서운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이야기

알빙 부인은 빗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내일이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딴 고아원이 개관하고, 알빙 부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죽은 알빙의 이름을 찬미하며 오래도록 칭송할 것이다. 알빙 부인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것을 희생했다. 진실은 저택 안에만 숨겨두고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빗장을 걸었다. 알빙 부인은 자유롭게, 삶의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저택을 돌아다니는 유령들의 발소리를 무시하고서.

개관식을 앞두고 알빙 저택에 진실과 관련된 이들이 모두 모인다. 유령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산 자임에도 유령들의 목소리만 내는 자가 있다. 죽은 것의 거죽을 뒤집어쓰고 무기처럼 휘두르는 자가 있다. 살아있고자 했지만 유령들에게 발목을 잡힌 이들도 있다. 과거에 묻어두었던 유령들이 되돌아와, 그 어느 때보다 큰 발소리를 내며 알빙 저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인물들

헬렌 알빙

죽은 남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알빙 복지재단의 고아원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감내하고 버텼었던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오래된 유령들과 다시 조우한다.

오스왈 알빙

알빙 부인의 아들로, 7살 때 파리로 유학을 떠나 지금은 화가가 되었다. 파리에서 자유로운 삶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그 또한 유령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데르스 목사

명망 높은 목사로, 고아원 사업의 총괄을 맡았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굳건한 장벽 같은 그는 신의 목소리를 자청한다.

야코브 엔스트란드

고아원 공사에 참여한 목수로 한쪽 다리가 약간 불편하다. 불편한 다리와 오래된 말썽들은 그의 유용한 무기이다.

레지나 엔스트란드

야코브 엔스트란드의 딸로, 알빙 저택의 하녀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구체적인 ‘유령들’을 향하여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팀

Q 정식 공연으로는 매우 오랜만에 양손프로젝트 구성원 전원이 신작을 위해 모였다. 4인 완전체 작업의 소감이나 감회가 궁금하다.

박지혜 넷이서 긴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이다. 넷이서 가다 보니 어떤 곳은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가야 할 수도 있고, 너무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가 보니 괜찮네? 싶은 곳에 들르기도 한다. 세 명이 지쳐 있으면 다른 한 명이 리드해 주거나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고, 서로서로 에너지를 받아 가는 느낌이 있다.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도 많이 갔고,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을 함께 한 느낌이라 연습 과정이 재미있었다.

‘죽음과 소녀(2012)’ 때도 생각이 많이 났다. ‘죽음과 소녀’는 넷이서 단편이 아닌 희곡 작품을 치열하게 작업했던 첫 작품인데, 그때보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술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느꼈다.

손상규 ‘유령들’을 작업하면서, 양손프로젝트라는 팀은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팀이라기보다 작업하는 과정을 찾는, 일종의 워크숍을 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입센의 ‘유령’을 올린다고 하면, ‘이 재료로 연극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떤 이야기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까’를 고민하고 시도한다. 항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고,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달한 것으로 공연을 올린다. 각자가 가진 성향이나 색깔이 다르고 처음부터 정해진 방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기는 하지만, 모든 고민의 시도와 결과들이 공연에 들어있는 셈이다.

완전체 양손프로젝트가 갖는 역동성

Q 작품에 따라서 1인극, 2인극으로 많이 공연했는데, 양손프로젝트 4인이 모두 모인 작업만이 가지는 힘이 있다면.

양종욱 함께 작업하는 멤버의 수나 구성이 달라지면, 각자의 취향이나 작품을 만드는 생각을 어느 정도로 주장할 지 영향을 받는다. 연극을 함께 만든다는 행위는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잘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주장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다른 의견에 물어갈 건지, 리드를 따를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흥미롭다. 양손프로젝트의 가장 최대치인 4명이 함께 있을 때에는 1인극, 2인극처럼 더 소인원일 때보다 서로의 의견들이 부딪히거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좀 더 역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재미있다.

양조아 양손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내가 맡을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걸 다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작업을 할 때 영감이 오는 데이터의 총량이 많다. 오랜만에 다 같이 작업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서로의 매력과 장점을 많이 보고, 실제 지금 맡은 배역을 연기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양손프로젝트가 선택한 레시피

Q 3인의 배우와 5인의 배역 중, 알빙 부인을 양조아 배우가 연기하고 다른 배역들을 손상규, 양종욱 배우가 나눠서 연기했다. 배역을 정하게 된 근거가 궁금하다.

양종욱 작품의 해석과 텍스트 작업이 되어 있다면, 배우 세명은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매우 열려 있는 창작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배역을 맡는다고 정해두지 않고 3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캐스팅 조합의 경우의 수를 다 시도해 봤다. 세 명이 모든 배역을 연기한다, 라는 선택지부터 세 명에서 한 명의 배역을 연기한다, 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떠올려서 실제로 연기해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서 굴려 봤다. 그렇게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레시피들을 맛보거나 어떤 맛인지 상상해 본 결과, 이번 디쉬에는 이 요리를 내놓자고 결정했다.

양조아 그러다 보니 그 역을 맡은 배우하고 결이 가장 비슷한 선택이 된 것 같다. 각자가 인물들의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양종욱 조아 배우의 앙스트란드도 잘 어울렸다.
박지혜 솔직히 제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한다(웃음).

실재하는, 실재하지 않는 것들

Q ‘유령들’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입센은 ‘유령(ghosts)’이라고 영역된 걸 싫어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령‘들’이라는 복수형에 집중했다.

손상규 어감이 더 구체적이라는 게 작용했다. ‘유령’이라고 하면 ‘유령’과 ‘유령들’을 포함하는데, ‘유령들’이라고 하면 그 중 복수형을 선택한 것이지 않나. ‘유령들’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졌고, ‘유령’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인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양종욱 구체적이란 말에 이어서, 사실 유령이란 실재하지 않는 존재다. 그런데 유령‘들’이라고 하면 ‘실재하는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무언가 있을 때만 ‘~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느껴져서, 무언가가 실재한다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

Q 유령‘들’로 타이틀을 선택한 것처럼, 원작의 텍스트를 수정하고 가감하는 과정에서 중시한 부분은.

박지혜 텍스트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즉흥 연기를 하면서 대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나는 실제 뱉는 말과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유령’이 당시 예민한 이슈들을 다뤄서 그런지, 직접적인 언어를 피하고 굉장히 돌려서 표현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대사도 길다. 반면 우리가 실제 말을 할 때는 돌려 말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때가 더 많다. 그래서 돌려 말하거나 비유적, 간접적으로 말하는 대사들 중에서, 실제 발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더 직접적이고, 대사의 리듬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겹쳐 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은 경우는
그걸 선택했다.

손상규 작업 초반부터 알빙 부인이 잘 보이도록, 알
빙 부인을 잘 따라가자는 생각이 있었다. 인물이 알빙 부인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빙 부인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바라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관객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 우주 같은 공간

Q 무대는 어떠한 컨셉으로 구상했는지 궁금하다.

박지혜 이 공간은 알빙 부인의 온실 같은 곳이다. '유령들'의 의상이나 소품 등으로 과거든, 현대든 특정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모두 지우고 **인물이 공간에 푹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원했다. 흰색 바닥에 검은색 가구라는 게 일상적이지 않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도 난다. 배우들 의상도 다 블랙과 화이트인데 살짝 갑갑한 느낌도 준다.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최소한의 장치로서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상규 질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대 세트를 세울 게 아니니까 의자 하나, 옷 한 벌 한 벌이 공간에 어떠한 느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공간이 어떤 느낌을 주면 좋을지 네 명 모두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

미술을 맡은 최고야 디자이너와 공간에 대해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었다.

최고야 양손프로젝트는 재현적이지 않고 연극의 언어가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관객들에게 어떠한 말도 걸지 않는, 하나의 우주 같은 공간**. 관객들이 알빙 저택의 거실에 함께 둘러앉는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 우주를 늘려서 관객들의 발끝까지 닿게 했다.

무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사안은, 꼭 필요한 것만으로 압축, 보관, 활용하는 것이었다. 극장 안에 무대가 들어섰다가 다시 완전히 비워지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세트 철수 후의 무대를 다시 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Q 양손프로젝트는 ‘유령들’을 시작으로 헨리크 입센의 3개 작품을 연달아 하는 ‘입센 3부작’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유령들’이 향후 작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입센 3부작’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

박지혜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유령’이라는 작품이 좀 불편했다. 내가 엄청 좋아하는 작품이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어서 약간 겁도 났었다. 매력적이고 강렬한 작품이지만 동시에 불편하다, 그리고 불편한 지점을 타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내가 다시 이 작품을 만나게 되면 좋아할 수 있도록, 작품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지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떠한 오만함(웃음), 우리 팀이 다 같이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연습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유령’에 나오는 인물들 에게서 나와 비슷한 모습,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게 불편했던 거라고 깨닫게 된 것 같다. 작품과 나의 내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거다. ‘유령’을 100개 팀이 공연한다고 하면 100개의 다른 ‘유령’이 나올 거다. 입센의 작품을 연달아 공연한다고 했을 때,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인 우리가 각자 작품과 만나는 방식을 어떻게 찾게 될지가 기대 된다. 나는 작품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같은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음 작업 때도 개개인 모두에게 그런 관계 맺기가 더 확장될 것 같다.

양종욱 이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잘 보일 것 같다. 작가가 희곡을 한 편만 쓴 게 아니라 수십 편을 썼는데, 같은 작가의 작품을 여러 편 작업하게 되면 그렇게 써 나가는 힘이 뭔지, 작품을 통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해, 또는 오해를

하게 된다. 3편의 공연을 통해 입센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이해, 또는 오해가 몇 발자국 더 나아갈 것이 기대가 된다. 반드시 '입센을 이해하자'는 건 아니지만, 같은 작가의 작품을 여러 편 공연한다는 건 일단 작가의 길을 한번 쫓아가 보겠다는 것이지 않나.

다음 작품을 올리면 '유령들'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한 단계 더 이해 또는 오해가 될 것이고, 3편을 모두 끝내고 나면 입센의 작품들에 '이런 핵이 있었구나, 이런 힘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 것들이 더 잘 건드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작업을 하면서 나 또한 작품에서 나를 건드리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건 쉽게 다가가거나 안아주고 싶지는 않아서 불편한 느낌이 기도 하고, 나에게 중요한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작품을 만들 때, **나에게 이 작품이 중요한 말을 걸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작업을 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다.** 3년을 하다 보면 그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듣게 되기를 바라고,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올린 세 편의 작품에 이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기대가 된다.

손상규 작업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런 면에서 다 같이 일종의 워크숍을 해 나가는 양손프로젝트는 치열하게 의견 충돌을 계속해야 하니까, 작업 과정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다른 팀과는 다른 점이다. 우리끼리 작업하니까 가능한 특수성인 것 같다.

어쩌면 '입센 3부작'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작업했을 때 효과가 입증되는 어떠한 작업의 룰이나 원칙, 프로세스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는 누구라도 쓰기 좋은 일종의 매뉴얼처럼. 우당탕탕하고 스스로 질문을 계속하고 애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낭비도 조금 있는 것 같다. 따르면 도움이 되는 어떠한 황금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양손프로젝트



© 양손프로젝트

2011년 결성된 양손프로젝트는 연출 박지혜, 배우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4인으로 구성된 공동창작집단이다. 작품 선정부터 각색, 연출, 연기에 이르기까지 창작의 모든 과정에서 역할을 구분하지 않은 긴밀한 공동창작 방식을 고수해 왔다. 양손프로젝트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가려면 모든 단계에서 구성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끊임 없는 설득과 토론, 시행착오를 통해 날카롭게 버려진 결과물을 무대에 올린다.

양손프로젝트는 '전략', '데미안', '여직공', 단편 모음 형식의 '단편선 레파토리展' 등 주로 소설을 무대화한 작업을 통해 평단의 찬사를 받아 왔으며, 남영동 대공분실, 리움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피크닉 등 전통적인 공연장 외의 공간에서 관객과의 접점을 확장해 왔다.

LG아트센터 U* 스테이지에서 공연된 '유령들'을 시작으로, 양손 프로젝트는 헨리크 입센의 3개 작품을 매년 무대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양손프로젝트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덜어내는 방식으로 재현을 최소화, 배우의 역량으로 빈 곳을 빈틈없이 채우는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해 왔다. 드라마의 본질을 탐구하고 파헤치는 양손프로젝트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한순간도 시선을 거둘 수 없는 밀도 높은 연극 경험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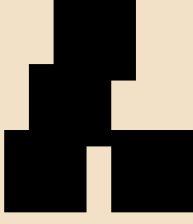
양손프로젝트

박지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연극

piknic 희곡극장(2025)
파랑새(2023)
전략(2022)
단편선 레파토리展(2021)
데미안(2021)
배신(2019)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2016)
여직공(2015)
한 개의 사람(2015)
죽음과 소녀(2012)
개는 맹수다(2011) 외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들’

원작	작	헨리크 입센 Henrik Ibsen
각색	색	양손프로젝트
연출	출	박지혜
조명	명	김형연 조명 어시스턴트 강지혜
사운드	드	카입
미술	술	최고야
무대감독	독	김동영
공동제작	작	LG아트센터 × 양손프로젝트
후원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ARKO Partners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

LG Arts Center SEOUL



© 박지하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마곡지구에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LG아트센터장

이현정

공연기획팀

팀장 신민경

김주연 김다솜 송수찬 김호연 정서영

대관·하우스 김철원 김효원 김보경 이정아

홍보마케팅팀

팀장 김지인

오경은 오지수 김유리 황정연

디자인 신미현

티켓 배윤정 정혜영 김나연 김아영 김수정 성정연

운영팀

팀장 양영수

김순자 김홍연 김지훈 안태훈 염인호 박민주

무대기술팀

팀장 엄성기

무대 홍지웅 송경근 배완수 박승철 윤혜성 황은주 임지은

조명 전명진 류대경 류한경 이준현 김우연

음향 이범훈 엄준석 오성범 박세환

제작지원

무대 크루 이광익 설인하 이영우 박주은 박정근 김재동 임준혁

조명 크루 김대희(조명 프로그래머) 오정훈 김병희 정태진

김현아 노명준 정호진 김보영 이하은

음향 크루 장윤하(음향 오퍼레이터) 정상교 김민성 전해성

무대제작 수무대미술 어윤호(대표) 함영규 김미경 반상윤

U+ 스테이지는 새로운 형식과 창의적인 콘텐츠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고객의 일상에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플러스의 브랜드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SPONSORED BY



LG아트센터 서울
2025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5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5

2025.4.5 - 11.16

LG SIGNATURE 홀	
김선욱 &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4.5
연극 '헤다 가블러'	5.7 - 6.8
클라우스 메켈레 & 파리 오케스트라 (piano 임윤찬)	6.13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6.18 - 29
영국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	7.4 - 6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탄초테아터 부퍼탈	11.6 - 9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11.14 - 16

U+ 스테이지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4.7 - 13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들'	10.16 - 26

LG아트센터 서울의 2025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5’는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LG

 LG전자

 LG U+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한화생명

 COURTYARD[®]
BY MARRIOTT

Seoul Botanic Park

보이스피싱 안심 AI 에이전트 익시오

